

국어 문장 부호의 기능

이 익 섭*

1. 서 론

문장 부호는 문장의 문법적(또는 논리적) 구조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문장을 바로 읽도록 돕는, 다시 말하면 바른 讀解의 길잡이 구실을 하는 일련의 부호들이다. 한 문장이 어디에서 끝나며, 끝나지는 않더라도 문장 안의 어디에서 경계가 생기는지를 나타내 주는 부호를 비롯하여 어떤 문장이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등을 구별해 주는 부호들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문장 부호를 흔히 句讀點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¹⁾ 그러나 문장 부호에는 문장의 어떤 부분이 삽입적인 요소인지, 그래서 덜 중요한 부분임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특별히 강조할 부분인지를 나타내 주는 부호도

* 본과 교수

1) 영어의 punctuation은 문장 부호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그 譯語인 구두점은 흔히 그 보다 좁은(가령 따옴표나 줄표, 낫표, 꺾쇠표 등은 포함하지 않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은 좀 기이한 일이다. ‘구두점’의 ‘점’이 그러한 의미의 제약을 가져 온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구두점은 문장 부호 중 어느것까지를 가리키나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대체로 ‘찍는다’는 말과 어울리는 것이 그 범위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있고, 어떤 부분이 낭의 말을 인용한 것임을 특별히 나나내 주는 부호도 있다. 말의 경우라면 숨을 삼시 끊는다든가 어느 부분에 특히 힘을 주어 말한다든가, 또는 억양을 높이든가 낮추든가 하여 청자로 하여금 화자가 의도하는 문장의 내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글의 경우에는 문장 부호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자음이나 모음과 같은 字母만큼은 못할지라도 문장 부호도 문장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에 틀림없다.

우리 글에서 이러한 문장 부호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오랫동안 문장 부호가 아예(아니면 거의) 없는 글을 쓰다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이 만들어지는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문장 부호에 대한 규정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것은 간략하기 그지없는 것이었고, 그나마 1940년도의 개정판(281판)에 와서야 크게 확충되었는데²⁾ 그 결과도 결국은 예문 하나 없이 짤막짤막한 규정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의 아무런 길잡이 구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매우 조리하고 비현실적인 모습의 것이었다.³⁾ 그러나가 『한글 맞춤법』(1989)에 와서 상당한 수준으로 확충되어 국어 문장 부호 규정이 한 단계 높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⁴⁾, 그러나 여

2) 이 때 23개항이 추가되어 총 39개항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백분율표(%)를 비롯하여 온도의 도수 등을 나타내는 동그라미나 수학에서 쓰는 고로표(;)까지 들어 있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것은 엄격히 문장 부호 규정이라고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그래서인지 이 부분의 제목도 ‘문장 부호’가 아니라 ‘부호’였다).

3) 한 예로 (2)그침표, (3)머무름표, (4)쉬는표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침표 : 한 문장이 대체로 끝나면서, 다음 문장과 의미상 연결됨을 보일 때 쓴다.
 머무름표 : 의미가 좀 중단되므로 읽을 적에 잠깐 쉬어 머물러야 할 자리에 쓴다.
 쉬는표 : 의미가 조금 중단되므로 읽을 적에 잠깐 쉬는 것이 좋을 자리에 쓴다.
 이를 중 그침표는 colon, 머무름표는 semicolon, 쉬는표는 comma에 대한 규정인데 예문 하나 없는 이를 규정으로써 세 종류의 부호를 어떻게 구별해 쓰라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더우이 colon과 semicolon을 무비판적으로 국어에 도입한 것도 우리 현실을 도와시한 치사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이러한 규정이 死文化될 수밖에 없을 것은 不間可知라 하겠는데(그래서인지 1980년도의 개정판 『한글 맞춤법』-부터는 이 부록이 아예 빠지기 시작하였다) 해설서(가령 이희승,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강의』) 등에서 이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해설을 볼인 일이 한번도 없었던 것도 이 규정의 이러한 비현실성에 연유해서였을 것이다.

4) 이 중간 단계로 문교부의 『校正便覽』(1964) 및 『한글전용편람』(1969)의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의해 그동안의 문장 부호 사용이 얼마나 질서를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는

기에도 정교치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 우리는 문장 부호에 관한 한 아직도 초보 단계에 있다고 해야 옳을 듯하다.

이 小考에서 우리는 국어 문장 부호의 정밀화 작업의 일단을 試圖해 보려 한다. 무엇보다 쉼표의 용도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그 규정을 정리해 보고자 하며, 나아가 인용부호 및 괄호 안에서의 문장 부호에 대한 규정을 새로이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한글 맞춤법》의 문장 부호 규정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무엇이 不實한 부분인가를 논의 대상과 관련하여 하나씩 지적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말하자면 국어 문장 부호의 정밀화 작업의 필요성을 보이는 한편 그 구체적 방향의 일단을 논의코자 하는 한 전초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 쉼표의 기능

쉼표(comma)는⁵⁾ 문장 부호 중 그 쓰임이 가장 빈번하고 복잡하며, 그 선택의 유동성도 가장 큰 편에 속하는 부호다. 영어의 경우는 이 한 부호의 사용 빈도가 나머지 부호 전체의 그것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으며(Troika 1996 : 429), 또 그 용법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한두 규정으로는 포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이나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될 수 있는 폭이 큰 부호로 인식되고 있다 (Kane 1983 : 622). 그만큼 쉼표는 어느 문장 부호보다도 정밀한 규정을

5) 《한글 맞춤법》의 문장 부호 규정도 결국 이 규정에 크게 의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comma에 대한譯語로 오랫동안 '쉼표'가 쓰여 왔는데, 또 period는 '마침표'라 하여 있는데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들을 각각 '반점'과 '온점'으로 고쳤다. 이는 문장 부호를 몇 개씩 묶어 상위 단위를 만들면서, 가령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를 하나로 묶고 쉼표, 기운뎃점, 쌍점, 빗금 등을 하나로 묶는 체계를 취하면서 이들 상위 단위의 이름으로 각각 '마침표'와 '쉼표'를 가져 가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우리는 종래의 용어를 그대로 쓰고자 한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여행의 마침표를 찍자"에서 '마침표'가 물음표나 느낌표까지를 포괄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 그 '마침표' 자리에 '온점'을 써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쉼표가 하나 들어가면 좋겠다"고 할 때도 쌍점이나 빗금을 연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침표, 쉼표'가 '온점, 반점'보다 한결 익숙한 이름임에 틀림없다. '온점, 반점'은 종서(縱書)에 쓰이는 '모점, 고리점' 따위와 구분하는 정도의 이름으로만 쓰면 좋다고 생각된다.

요하는 부호라고 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15 항목에 걸쳐 어느 부호보다도 여러 항목으로 세분되어 있는 것도 바로 쉼표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처럼 여러 항목에 걸쳐 쉼표의 다양한 용도를 세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글 맞춤법》의 규정은 의외로 정밀치 못한 부분이 많다. 첫머리에서 쉼표의 기능을 한마디로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낸다”고 규정한 것부터가 그러하다. ‘짧은 휴지’란 무엇인가? 말을 할 때 실제로 숨을 얼마간 멈추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일 수밖에 없을 터인데 과연 “5, 6세기”나 “다시 보자, 한강 수야”에서 쉼표는 휴지를 나타내 주는 기호인가. 심지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에서도 휴지를 두고 말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쉼표는 문장의 어떤 문법 구조와 관련되는, 다시 말하면 문장의 어떤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시켜 그 문장의 문법 구조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 주는, 철저히 문자언어 (written language)를 위한 장치이며⁶⁾, 그것이 어쩌다 휴지와 일치되는 경우가 있다 해도 그 자체가 휴지를 반영하는 기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적인 말을 기준으로 하여 문장의 어느 부분에서 숨의 휴지를 두는지는 사람마다 달라 만일 이에 근거하여 쉼표를 규정한다면 아무 규정도 만들지 못하고 말 것이다. 쉼표를 음성언어(spoken language)의 어떤 현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부호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뿐만 아니라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구체적인 규정에서도 헛점은 도처에 있다. 먼저 <15항>의 “수의 자릿점을 나열할 때 쓴다”라는 규정은 어떤가. 용례로 “14,314”를 들고 있는데 이것도 천 단위마다 찌는다든가 해야 규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규정만으로는 우리가 왜 ‘1996년’이라고 할 때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는가

6) “The comma indicates the smallest interruption in continuity of thought or sentence structure”(*The Chicago Manual of Style* : 165)에서 보면 쉼표는 문법 구조 (또는 想考)의 흐름의 아주 가벼운(최소의) 중단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휴지’란 곧 여기의 ‘중단(interruption)’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나 ‘휴지’는 ‘pause’의 역어로서 굳어진 용어인 점에서 양자가 같은 의미일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짧은 휴지’란 숨의 와적인 정지를 가리키는 말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문장 구조의 흐름에서의 중단’과 동일한 개념으로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예외 규정을 정확히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영어의 경우를 보면 연도, 번지, 우편 번호, 주민 등록 번호 등에는 쉼표를 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실제로 그런 데에는 천 단위를 구분하지 않는데 결국 규정 따로, 현실 따로의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다.

가벼운 것이지만 <7항>의 “도치된 문장에 쓴다”는 규정도 허술하기는 마찬 가지다. 국어의 정상적인 어순을 SOV어의 규칙에 따라 주어-목적어-서술어로 본다면 도치된 문장의 용례는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것들에 모두 쉼표를 찍어 가령 “이 편지 누가 썼니?”나 “이걸 네가 가져라” 등에 일일이 쉼표를 찍는다면 어떻게 될까? 다행히 사람들이 혼명하여 우문현답을 하고 있으니 망정이지 우리 문장 부호 체계는 우수꽝스러운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쉼표의 규정 중 필자가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것 중의 하나는 <3항>의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에 쓴다”라는 규정이다. 여기에서도 마치 바로 다음에 오는 말을 꾸미지 않을 경우에는 늘 쉼표를 찍으라는 규정처럼 되어 있는 것이 우선 지적될 이 규정의 핫점이다. 다음과 같은 예문에 이 규정에 맞추어 쉼표를 찍어 놓고 보라. 그리고 그것을 ■ 경우와 비교해 보라. 없어도 전혀 불편이 없지 않은가.

- (1) a.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서울의 빌딩들
- b. 술독으로 땀기처럼 새빨갛게 된, 김 첨지의 코
- c. 나의, 그 손바닥만한 하숙방에는 그래도 꿈이 가득 차 있었다.

<3항>은 매우 유용한 규정이며, 필자는 이 사항이 쉼표의 용법 중 가장 강조되고 또 가장 정성들여 가르쳐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 <3항>은 용례부터 적절치 않아 보인다.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경주 불국사의 무영탑”과 “성질 급한, 철수의 누이동생이 화를 내었다”가 그 용례인데 이 중 뒤엣것은 언어학 책에서 단골로 쓰이는 ‘stout mayor’s wife’를 번역해 만든 억지 예문 같고, 앞엣것은 예문 (1)에서보다는 필요할지 몰라도 역시 쉼표가 안 쓰여도 좋을 예인 듯싶다.

<3항>의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앞의 말이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는 것으로 오해되어 혼란을 일으킬지도 모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가령 다음과 같은

경우다.

- (2) a. 그러니까 낡은 공간이 아니라 작가의 의식적인 계획으로 남겨진, 화면의 질서와 조화를 함축하는 여백을 귀히 여겼다. (윤명노 1996; 174)
 b. 개강하고 마주치는 사람들의, 녹음된 장난감처럼 물어 보는 판에 박은 물음에 나는 지쳐 버리고 말았다.
 c. 오늘날 이용되고 있는 가장 주목되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통증 치료법의 개요를 소개한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1997년 1월호 38면)

즉 예문 (2a)에서 ‘남겨진’은 저 뒤의 ‘여백’을 꾸미는 말인데 반일 쉼표가 없다면 바로 다음의 ‘화면’이나 또는 ‘화면의 질서와 조화’를 꾸미는 것으로 잘못 읽힐 수 있다(아니면 적어도 잠시 그러한 혼란에 빠졌다가 해어나오는 수고를 겪게 되기 쉽다). <3항>은 바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슬픈 사연을 간직한 불국사의 무영탑”에는 그럴 염려가 별로 없고 예문 (1)은 더욱 그렇다. <3항>의 규정은 ‘誤讀의 素地가 있을 때에’와 같은 조건을 소홀히 한 결과로, 또 그 용례조차 부적절한 것을 제시함으로써 쉼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 하나를 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만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3항>의 규정은 이보다 더 큰 헛점을 안고 있다.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에”라는 조건 규정이 그것이다. 이것은 현상을 너무 좁게 본 것인 대 ‘꾸미는’ 관계가 아니면서 바로 다음에 오는 말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誤讀될 素地가 있는, 그래서 쉼표가 필요한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미 다른 글(이익섭 1990 등)에서 인용하였던 예문들을 다시 보기로 하자.

- (3) a. 바다는, 물이 켜져 있으면 고독을 아지 못하는 어린애의 洋樓과도 흡사하다. (이양하, <푸르스트 산문>)
 b. 천사는, 처음 출근한다는 기쁨 때문에 역시 새벽 네 시에 잠이 깨어 있는 나를 아직도 자고 있는 줄로 알고, 김치가 있는 장독대로 가기 위해 내 방 앞을 지날 때 발소리를 죽여 조심조심 걷는다. (김승옥, <多產性>)
 c. 한편 일본과 쌍벽을 이루었던 소련은, 작년 월드컵 때부터 수준 향상을 보여 이번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쿠바를 감당해내기 어려울 것 같다. (신문 기사)
 (4) a. 이삼 쉼표 선만 하여도 ‘걷는 일’은 우리 곁에 있었다. 북아현동에 살았던 나는 서대문과, 신촌에 있던 학교를 늘 걸어다녔다. (상명수, <장명수 칼럼>)

b. 대전과, 옥천을 비롯한 충청북도 일원에 하루 종일 폭설이 내렸다.

예문 (3a)의 구조는 그 문장 전체를 ‘바다는 불이 켜져 있으면’을 전반부, 그 이후를 후반부로 끊어 읽기 쉽도록 되어 있다. 그로 인해 이 문장은 자칫 “바다는 그 바다에 불이 켜져 있으면”으로 잘못 읽힐 위험이 있다. 그런데 실은 불이 켜져 있는 곳은 洋燈이다. 이 때 쉼표는 ‘바다는’이 바로 다음에 오는 말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아님을 일러 주는 훌륭한 구실을 한다. 여기서 ‘바다는’이 ‘불이’를 ‘꾸미는’ 관계가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b)도 마찬가지다. 열肽 ‘천사는’이 ‘처음 출근한다는 기쁨 때문에 새벽 네 시에 잠이 깨어 있는’의 주어처럼 읽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 그것을 쉼표가 효과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예문 (4)는 유형을 조금 달리하지만 역시 꾸미는 관계가 아니면서 바로 다음에 오는 말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아님을 일깨우기 위해 쉼표가 쓰인 경우다. (4a)의 경우 자칫 잘못 읽으면 학교가 ‘서대문’과 ‘신촌’ 두 곳에 있는 듯이 오해하기 쉽다. 그런데 이 글의 필자는 이화여대 출신으로 학교는 신촌에만 있다. 집이 신촌과 서대문의 중간 지점인 북아현동에 있어 서쪽으로 학교까지, 동쪽으로 서대문까지 걸어나온다는 얘기인 것이다. 이 점에서 (4b)에서의 쉼표의 효능은 너무나 명백하다.

이렇게 보면 예문 (3)과 (4)에서의 쉼표는 그 기능면에서나 그 중요도에서나 예문 (2)에서의 경우와 한데 묶일 성질의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글 맞춤법》의 쉼표에 관한 규정 <3항>에서 쉼표의 이 중요한 쓰임에 전혀 눈을 돌리지 못하였던 것은 不察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느냐 않느냐가 아니라 그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並列되어 있는 두 말이 어떤 構成의 직접구성요소의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3항>의 규정이 보완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⁷⁾

7) 《한글 맞춤법》의 쉼표 규정 <12항>은 “문맥상 끊어 읽어야 할 곳에 쓴다”라는 규정 밑에 몇 가지 이질적인 예문을 들고 있는데 이를 예문 중

- (ㄱ) 갑들이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 (ㄴ) 갑들이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의 예를 <3항>에 통합하여 좀더 포괄적인 규정을 만들기만 하였어도 우리의 요구가 얼마간 충족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12항>에서도 “철수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우리 글에 쓰인 쉼표를 보면, 문장의 誤讀을 예방해 줄 만한 자리에는 오히려 빠져 있고 없어도 좋을 자리에, 아니면 없어야 더 좋을 자리에 쓰인 경우가 많다. 이것은 무엇보다 규정 자체가 충실히 못한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보았듯이 쉼표가 隨意的으로 쓰일 자리와 必須의로 쓰일 자리를 구분해 주지 않고 너무 소략하게, 너무 둥뚱그려 규정해 놓음으로써 불필요한 자리에게서 쉼표를 남용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한 예로 <4항>의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에 절 사이에 쓴다”만 하여도 그렇다. 아주 당연한 규정 같지만 (이것이 필자가 가장 못마땅해 하는 규정의 나머지 하나다) 이 규정은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아니 도저히 지켜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먼저 이 규정의 예문으로 제시된 다음 (5)를 보기로 하자.

- (5) a.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 b. 흰 눈이 내리니 경치가 더욱 아름답다.

이들 예문에는 애초 쉼표가 찍혀 있다. 그것을 일부러 빼고 써 본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있어야 할 구두점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거의 받지 않는다. 즉 <4항>의 규정을 어겨도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규정 <4항>이 유명무실한 규정이란 뜻이 아닌가. 국어는 ‘나고’의 ‘-고’나 ‘내리니’의 ‘-니’와 같은 어미가 이미 쉼표의 기능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일 것인데 절과 절 사이에 필수적으로 쉼표를 찍으라는 규정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칫 어떤 害毒까지 끼칠 수 있는 규정이 아닌가 한다.

물론 예문 (5)의 절 사이에 쉼표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당장 (5b)의 경우 ‘흰 눈이 내리니, 경치가 더욱 아름답다’처럼 쉼표를 찍고 읽어 보면 쉼표가 오히려 글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4항>의 규정을 충실히 지키려 하다 보면 참으로 필요한 쉼표와

“이내”류의 예문을 함께 제시하면서 “끊어 읽어야 할 곳”이라 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바로 포착하지 못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끊어 읽는다는 것은 짧은 휴지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시간적 간격을 뜻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쉼표를 실체적인 숨의 휴지와 관련시켜서는 쉼표의 본질을 誤導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없어도 좋을 쉼표가 뒤틀리게 되어 구두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교과서류에서 그러한데 시도 때도 없이 쉼표를 過用하여 讀解에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례가 非一非再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한 예로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 (6)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세속에 얹매여,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나, 또는 五欲七情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데 마음에 寧日을 갖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小하고 어떻게 低俗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調和를 깨뜨리는 한 汚點 또는 한 雜音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이양하, <신록 예찬>)

이 예문은 애초 구두점이 거의 찍혀 있지 않았다. 교과서에 실리면서 교과서의 고질적인 버릇 때문에 쉼표 투성이가 되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글의 구조를 바로 이해시키는 일을 돋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먼저 ‘세속에 얹매여’ 다음의 쉼표는 없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 쉼표는 마치 이 구절이 바로 다음의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만을 꾸미지 않고 그 뒤의 것들까지 꾸민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없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다. 뒤에서 곧 밝혀지겠지만 ‘세속에 얹매여’가 ‘주머니의 돈을 세고’ 이하까지를 꾸밀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끝 무렵의 ‘우리 사람이란’ 다음의 쉼표도 그 효용성이 의문스럽다. 주어 다음에 쉼표를 찍는 일을 쓸데없이 많이 하는 것도 교과서가 범하고 있는 잘못의 하나일 것이다. 주어 다음에 쉼표를 찍으면 그 주어와 그 주어에 짹이 되는 서술어 사이에 다른 말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 글의 경우는 ‘우리 인간이란 어떻게 비소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로 바로 이어 읽어야 문맥이 제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인간이란, 어떻게 비소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이라고 하면 ‘어떻게 비소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를 마치 삽입절처럼 이해하게 만든다. 그러나 비록 그 뒤의 ‘결국은’ 이하도 ‘우리 사람이란’에 걸리는 서술절이긴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앞에서 숨을 한번 돌리고 다시 이어지는 얼마간 간접적인 서술절이며, ‘어떻게 비소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가 그 앞의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또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들의 인간 속성에 통합되는 직접적인 서술절일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서도 돋자고 찍은 구두점이 오히려 讀解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예문의 구두점 중 가장 심각하게 문제 삼아야 할 부분은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니'의 쉼표들일 것이다. 이 문장은 얼핏 보면 쉼표로 연결된 네 구절, 즉 '못하고,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이 모두 같은 자격을 가지는, 다시 말하면 모두가 그 뒤의 '네 여념이 없거니'를 수식하는 구조의 문장처럼 읽힌다. 그러나 조금만 유의해 보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 여념이 없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알지 못하고'는 '돈을 세고'나 '지위를 생각하고'들과는 같은 자격일 수 없다는 것을 이내 알 수 있게 된다. '알지 못하고'는 그 뒤에 '서'를 덧붙여 '알지 못하고서'로 읽으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모르고 그랬다'의 '-고'와 마찬가지로 '알지 못하고'의 '-고'는 이유를 나타내는 '-고'로서 대등한 연결을 나타내는 '돈을 세고'의 '-고'나 '지위를 생각하고'의 '-고'와는 다른 '-고'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니'와 같은 구두점 찍기가 얼마나 무분별한 짓인가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는 그 뒤의 문장을 꾸미는 말이므로 원칙적으로 쉼표를 찌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꾸미는 말이 단순하지 않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니'처럼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알지 못하고'의 뒤에 쉼표를 찍는다면 이번에는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의 쉼표는 찍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아예 예문 (6)의 구조에 대해 한가지만 더��言해 두었으면 한다. 이 문장은 그 속에 정교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 사람이 란'을 향해 한쪽에서 '…하는 데 여념이 없는'이, 다른 한쪽에서 '…하는 데 마음에 靜日을 갖지 못하는'이 꾸미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선 그러하다. 그리고 이들 앞에 각각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이 놓여 역시 멋진 대칭을 이룬다. 그러면 후반부의 '五欲七情에 사로잡혀'에 대칭이 되는 부분은 어디인가. 얼핏 '세속에 얹매여'로 생각하기 쉽다. '사로잡혀'와 '얽매여'의 어미들이 모양에서나 기능에서 일치하여 더욱 그러한 현혹을 일으킨다.(또 그래서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를 '주머니의 돈을 세고'와 같은 자격의 구로 誤讀할 합정도 도사리고 있다. 교과서에서 예문 (6)에서처럼 구두점을 찍은 것도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서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칭 구조라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가 공중에 뜨게 된다.(그것이 '주머니의 돈을 세고'와 같은 자격이면 일이 풀리나 그럴수 없음을 이미 앞에서 본 바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결국 '세속에 얹매여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전부가 '五欲七情에 사로잡혀'에 대칭이 되는 부분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세속에 얹매여'는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부분만 꾸미고 이것들 전체가 다시 '주머니의 돈을 세고' 이하를 꾸미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 문장은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이를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문 (6)의 구두점에 대해 논급한 것들이 이 문장의 이러한 구조를 근거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7)

**세속에 얹매여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 { 주머니의 돈을 세는
지위를 생각하는
명예를 생각하는 } → 데 여념이 없는

우리 사람이란

五欲七情에 사로잡혀

↪ { 싸우는
미워하는
시기하는
질투하는 } → 데 寧日을 갖지 못하는

조금 성격이 나르지만, 앞의 예문 (6)에서처럼 구두점을 남용한 예문을 하나 더 보기로 한다. 앞의 예문 (6)은 문장 자체는 훌륭한데 구두점을 그 문장의 구조에 맞지 않도록 찍어 글을 망가뜨린 경우인데 이 예문은 문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모호하게 되어 있어 구두점만을 문제삼기는 어렵다. 그러나 역시 구두점이 제 구실을 할 수 없도록 무질서하게 찍혀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제기하였던 문제를 똑같이 안고 있는 문장이며, 그 점에서 비슷한 흥미를 일으키는 예문이라 할 수 있다.

- (8) 성실한 마음과 둋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치지를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국민 교육 현장〉)

이 예문은 아무리 뜯어 읽어도 그 정확한 구조를 알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배우고 익히며’와 ‘소질을 계발하고’가 그 뒤의 ‘발판으로 삼아’와 같은 자격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끝의 ‘정신을 기른다’와 같은 자격으로 쓰였는지를 풀 길이 없다. 즉 이 예문은 다음 세 가지의 구조 중 어떤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결정적으로 1. 어느 하나로 읽어야 한다는 斷定을 내릴 수 없는(그렇게 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는), 한마디로 전형적인 모호성을 지닌 문장인 것이다.

- (9) a.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여)
 (우리의 치지를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 b.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힌다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한다
 (우리의 치지를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 c.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힌다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여)
 (우리의 치지를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그런데 만일 이 글의 필자들이 이 세 가지 가능한 구조 중 어느 하나의 구조가 자기들이 진정으로 의도한 구조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다면 구두점으로 그것을 드러낼 방도는 없었을까. 가령 (9a)의 구조라면 ‘의하고’와 ‘계발하고’ 다음의 쉼표를 없애는 방도가 있을 법하지 않은가. 또 (9b)의 구조라면 적어도 ‘삼아’ 다음의 쉼표는 찍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에 대한 그 어떤 배려도 찾을 길이 없다. 이 글이 안고 있는 모호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만한 기초적 지식이 조금이라도 갖추어져 있었다면), 그리고 구두점의 기능에 대한 얼마간의 인식이라도 바로 갖추고 있었다면 이토록 마구잡이로 구두점을 남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예문 첫머리의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다음의 쉼표도 왜 찍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이 멀리 이 글 끝의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에 걸린다는 의미인가. 그렇다면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 사이가 너무 멀지 아니한가. 아니면 바로 다음의 ‘학문과 기술을 배우며’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와 ‘우리의 처지를 발판으로 삼아’를 다 꾸민다는 뜻인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한다’도 그리 자연스럽지 못하지만 특히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우리의 처지를 발판으로 삼는다’는 말은 아무래도 우수꽝스럽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는 바로 다음의 ‘학문과 기술을 배우며’만 꾸민다고 보아야겠는데 그렇다면 그 사이의 구두점은 오히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들아갔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예문 (8)은 글 자체가 이미 惡文인데다가 무질서한 구두점이 그것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킨 경우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때 우리는 구두점을 너무 찍지 않아서 탈이었다. 예문 (6)이 애초에 실려 있던 《李敷河 隨筆集》만 하여도 도무지 쉼표를 안 찍으려 하여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쉼표를 지나치게 남용하여 또 다른 불편을 주고 있는 면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규정 자체의 不備에서 그 원인의 一端을 찾았거니와 이에 대해 한두 가지만 더 살펴보았으면 한다. 먼저 다음 예문부터 보기로 하자.

(10) a. 그래서, 생일 아침이면, 생일을 맞은 당사자는, 새 옷을 입고 옷깃을 여미

- 고 부모님께 먼저 큰절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그 날의 행사를 시작하였다.
- b. 우리는, 부모나 조상의 영혼이, 제삿날이 되면 직접 찾아오셔서, 차려 놓은 음식을 잡수신다고 생각한다. (이상 『중학 국어 3·2』, 1986년도판)

앞의 예문에는 분명히 지나치게 쉼표가 많다. 유난히 쉼표가 많이 찍힌 특정한 부분을 애써 고른 것도 아니다. 교과서를 보면 대부분 이런 식이다. 특히 한 때에는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류의 접속어 다음에는 무조건 쉼표를 찍어댔다. 적어도 그것은 눈에 거슬렸던지 『한글 맞춤법』에서 쉼표 규정 <9항>의 예외 조항으로 “‘다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 (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 등) 뒤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것만으로도 쉼표의 범위에서 반던 우리의 피로감은 한결 덜게 되었다. 그런데 이 예외 규정도 치밀치 못하여 우리의 피로감이 그리 산뜻하게 걷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여기서 아울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쓰이는”의 경계가 어디인가? ‘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의 예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혹은, 즉, 곧, 그래서’ 등 훨씬 많은 예를 제시하여 여기에서 다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었어야 할 것이다. 새 맞춤법 이후에도 가령 ‘즉’ 다음에 쉼표를 찍는 일을 많이 보는데 이를 단호하게 어느 한쪽으로 통일시킬 장치가 현재로서는 애매한 상태인 것이다. 당장 앞의 예문 (9a)의 ‘그래서’ 다음의 쉼표도 숙제라면 숙제인 쉼표이다.

여기에서 앞 예문 (9b)의 쉼표와 관련하여 영어에서 관계절을 비롯한 수식 요소가 제약적인 기능을 가지느냐 않느냐에 따라 쉼표의 선택이 달라지는 규칙에 대해 잠시 살펴보았으면 한다. 제약적(restrictive)이나 비제약적(nonrestrictive)이냐 하는 말은 그 요소가 그 문장의 의미 형성에 필요불가결(essential)한 부분인가 아닌가를 뜻하는 것으로 영어에서는 전자의 경우에는 쉼표를 찍지 않고 후자의 경우는 그 앞뒤에 쉼표를 찍는 것을 엄격한 규칙으로 삼고 있다. 다음 예문 (11)은 밑줄친 부분이 없으면 문장의 의미가 사뭇 달라져 그 때문에 쉼표를 찍지 않은 경우들이며, 예문 (12)는 밑줄친 부분이 없어도 문장 전체의 의미가 별로 손상을 입지 않는 경우로서 그 때문에 쉼표를 찍은 예들이다.

- (11) a. Some states retest drivers *over age 65* to check their driving

- competence.
- b. The Elizabeth Taylor *who wrote numerous stories and novels* is not Elizabeth Taylor the actress.
 - c. The books *that are required reading for the course* are placed on reserve in the library.
- (12) a. My parents, *who are both over age 65*, took a defensive driving course last year.
- b. The British writer Elizabeth Taylor, *who wrote numerous stories and novels*, is not the actress Elizabeth Taylor.
 - c. These books, *which are placed on reserve in the library*, are required reading for the course.

영어의 이러한 관행이 국어에 적용된 것으로 본다면 앞의 예문 (9b)의 “제삿날이 되면 직접 찾아오셔서”는 비제약적 요소, 달리 말하면 일종의 삽입절적인 요소여서 그 앞뒤에 쉼표를 찍은 것이라고 이해될 여지가 있을 법하다. 그런데 과연 “제삿날이 되면 직접 찾아오셔서”는 그러한 요소인가. 차려 놓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제삿날 직접 찾아오는 일은 필요불가결한 절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쉼표 없이 이어 읽어야 매끄럽게 읽힌다. 앞뒤의 쉼표는 공연히 그 맥을 끊어 놓고 있는 것이다. 국어 문장에 제약적, 비제약적의 개념이 그대로 잘 적용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의援用이 필요한 것만은 (9b)의 검토 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쉼표에 대해 끝으로 한 가지만 덧붙였으면 한다. 앞에서도 잠깐 비쳤지만 쉼표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필자 개개인의 재량권이 얼마간 허용되는 특성을 가진다. “필요한 경우에”라고 할 때 필요하다는 판단이 다를 수도 있겠고, 그보다는 쉼표에 따라 얻고자 하는 효과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예문에서 그 한 좋은 보기다 볼 수 있다.

- (13) 형광등이, 낡았는지, 불이 사그라겼다가 다시 켜지곤 하였다.

(김승옥, <多產性>)

이 예문에서 쉼표의 기능은 분명해 보인다. ‘낡았는지’를 삽입적인 요소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이 부분을 삽입구로 처리하는 것은 필자의

재량이라 할 만하다. 여기에 쉼표가 없다고 해서 자기에는 반드시 쉼표가 쓰일 자리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 부분은 그저 잠깐 머리 속을 스치는 가벼운 부분이라 판단하고 그러한 뜻을 쉼표에 담으려 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뜻이 쉼표에 의해 멋지게 성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할 일은 쉼표 하나의 선택을 위해서도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3. 인용문 및 팔호 안 문장의 문장 부호

『한글 맞춤법』에는 인용문 안에서의 문장 부호에 대해 아무런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따옴표 규정의 용례를 통해 인용문의 구두점은 인용되기 이전의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보다 하는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즉 다음의 두 용례를 보면 인용문이 독립된 문장으로 쓰일 때나 다른 문장의 내포문으로 쓰일 때나 문장 끝의 구두점이 그대로 찍혀 있음을 볼 수 있다.

- (14) a. “고야 농불을 켜고 보았겠지.”
- b.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직접 인용은 나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므로 그 문장 부호까지를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 당연할 듯싶다. 그러나 (14a)처럼 독립된 문장이라면 그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당연하나 (14b)처럼 다른 문장의 내포문으로 쓰였을 때는 문장 끝의 마침표는 생략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다. 마침표는 그야말로 한 문장을 끝내는 부호인데 비록 직접 인용이라고는 하나 내포문에 마침표가 있으면 눈에 거슬리는 것을 감안한 관행일 것이다. 따옴표에 의해 거기에서 인용문이 끝난다는 것이 명확하므로 그곳의 마침표는 굳너니기라는 생각이 작용하였을지도 모른다. 어떻든 영어의 경우 (14b)와 같은 인용문에서는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것을 중요한 규칙으로 삼고 있다.⁸⁾

8) *The Chicago Manual of Style*(1993:160)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마침표를 쉼표로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에 대한 별도의 明文을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인용문의 마침표 사용은 혼란을 겪고 있다. 교과서는 철저히 찍는 쪽이고 (그래서 눈에 거슬리는 장면이 한두곳이 아니고), 다른 편에서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갈리거나 출판사의 정책에 따라 갈리는 듯하다. 즉 어떤 출판사는 철저히 마침표를 빼는 것을 원칙을 삼고 있는 듯하고⁹⁾, 어떤 출판사는 필자의 취향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전체적으로 보면 혼란한 상태에 있는 실정인 것이다.

필자는 내포문으로 쓰인 인용문의 마침표는 역시 눈에 거슬린다고 생각한다. 군더더기라는 생각도 물론 없지 않다. 직접 인용문은 종류가 다양하여 비교적 긴 완전한 문장도 있으나 아주 짧막 짧막한 불완전문도 많다. 또 인용문 안에 다시 인용문이 있어 작은 따옴표를 써 가며 그것을 드러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들에 일일이 마침표를 찍어 놓고 보면 문장 부호가 과연 讀解를 돋기 위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절로 난다. 다음 예문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15)의 인용문에 마침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겪는 불편은 없다. 거기에 비해 (15)'의 마침표는 일반 마침표와 달리 어딘가 튀어나 보이고 또 글의 흐름을 막는다는 느낌을 준다. 예문 (16)에서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 예문은 한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 실제로 출판사에 따라서는¹⁰⁾ 이처럼 인용문이다 싶은 것이면 철저히 마침표를 찍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 (15) a. 뒤에서 “버스역” 하는 소리에 나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 b. “중국에는 ‘나무도 뿌리가 있는 쪽으로 잎을 떨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대체할 수도 있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국어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인다.

If the quoted sentence is included within another sentence, its terminal period is omitted or replaced by a comma, as required, unless it comes at the end of the including sentence.

9) 가령 일조각이나 창작과비평사가 이에 속한다.

10) 이 예문이 실린 『서울에서 하버드까지』(1996)은 계몽사에서 낸 것인데 이 책은 철저히 마침표를 찍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의 예문 (15d)도 이 책에서 뽑은 것인데 거기도 예외 없이 (15'd)에서처럼 마침표를 찍고 있다. 필자에게는 이 책이 내용이 좋아 잘 읽히면서도 이 마침표가 나올 때마다 신경에 거슬리곤 하였다. (아울러 단락 구분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딱한 부분이었다.)

라고 하면서 그는 모처럼 부모의 나라를 찾은 감회에 젖었다.

- c. 그는 번번이 격앙된 어조로 “나를 놀라게 한다”, “나를 분노케 한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라고 탄식한다.(이환 외, 『프랑스 고전문학 연구』, 375면)
- d. 그들이 바라는 대답은 “매일마다 밤새워 공부만 했다”였을 테지만 그런 대답은 사실과 너무나 틀렸기 때문이었다.

- (15)' a. 뒤에서 “버스터” 하는 소리에 나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 b. “중국에는 ‘나무도 뿌리가 있는 쪽으로 잎을 떨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귀향의 감회에 젖었다.
 - c. 그는 번번이 격앙된 어조로 “나를 놀라게 한다”, “나를 분노케 한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라고 탄식한다.
 - d. 그들이 바라는 대답은 “매일마다 밤새워 공부만 했다.”였을 테지만 그런 대답은 사실과 너무나 틀렸기 때문이었다. (『서울에서 하버드까지』, 142면)
- (16) 그럴 때마다 나는 되묻는다. 그런 말을 하버드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부터 직접 들었느냐고. “예스”라는 대답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서울에서 하버드까지』, prologue)

구두점의 관행은 오랜 경험을 통해 갈고 닦인 결과일 것이다. 인용문 안에서의 마침표를 찍지 말기로 한 것도 앞 예문 정도의 검토만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러한 경험을 통한 한 韻智의 所産임을 깨닫게 된다. 뜻있는 출판사에서 이미 선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꼭 다행한 일이나 오히려 앞장서야 할 『한글 맞춤법』이나 교과서 편찬자 측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팔호 안의 문장에서도 비슷한 마침표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도 『한글 맞춤법』은 일말의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데, 다음 예문들을 보면 팔호 안 문장에 마침표를 찍지 말도록 하는 어떤 규정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팔호 안의 문장도 결국 일종의 내포문이면서도 인용문보다도 더 깊게(?) 내포된 것이어서 마침표 따위로 글의 흐름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은 이 경우가 더 절실하기 때문이다. 역시 출판사들이 앞장서서 마침표 생략의 관행을 만들어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은¹¹⁾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해야 할 것이다.

11) 한 예로 아래 예문 (17a)의 책은 샘터사가 출간한 것인데 이 규칙을 훌륭히 지키고 있다.

- (17) a. 재래식 시골 뒤간이(화장실이란 말은 여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안채와
는 떨어진 입구에 있었다. (법정, 『새가 날아간 산은 적막하다』, 250면)
b. 이 논문은 우리 나라의 사회 계급을 7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연구 기준
연도는 1980년이다) 어떤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라면 5등급 정도로
도 그 지역의 계급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괄호 안 문장 끝의 구두점과 관련하여 평소 우리가 궁금해하는 문제 하나를 여기에서 아울러 논의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괄호 안 문장이 한 문장 안에 내포 형식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 문장이 끝난 다음에 괄호로 묶인 문장이 이어질 때의 경우인데, 이 때 괄호 앞 문장 끝에 (다시 말하면 앞 문장 끝과 괄호 사이에) 마침표를 찍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 영어에서는 “괄호 안의 문장이 바로 앞 문장과 내용상 긴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는 두 문장의 마침표를 뮤어 괄호 밖에 하나만 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마침표를 각각 따로 쓴다”는 원칙을 세워 실시하고 있다.¹²⁾ 우리도 대체로 이 원칙을援用하면 좋을 듯하다. 그렇게 하면 다음 예문 (18)과 (19)에서처럼 두 경우가 구별되어 쓰일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구분이 때에 따라서는 그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으나 일단 필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실제로 글을 쓸 때 어떤 근거가 될 만한 이러한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고, 상식적으로도 불합리한 쪽을 선택해 쓰는 경우도 많다.

- (18) a. 우리말의 'ㄱ, ㄷ, ㅂ' 등의 소리는 폐쇄음이다(전통적으로는 흔히 파열음
이라고 하였다).
b. 혼인한 부부는 신부의 집에서 살기도 했고 신랑의 집에서 살기도 했다(이는
조선이 시가살이 사회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c. 한자어 중에는 '분'(筆)이나 '먹'(墨)처럼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이기문 1972 : 79). 말하자면 이들은 일반 한자어와는 달리 정상적

12) 참고로 *The Chicago Manual of Style*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구별된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ㄱ) Florelli insisted on rewriting the paragraph. (I had encountered this intransigence on another occasion.)
(ㄴ) Poncifall looked at me with a desperate expression (Erika, it seems, had dropped a ring into his hand as she left the room).

인 절차를 밟고 들어온 차용어인 셈이다.

- (19) a. 이 『천자문』은 원래 한 고서(古書) 수집가가 주장하고 있던 것인데 그가 이 문고에 기증한 것이라 한다.(이 이야기는 지난해에 이 문고 김 실장이 말해 주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
 b. 아래에서는 우리말의 호칭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경어법의 전반적인 모습은 3장에서 다룬다.)

4. 남은 문제

이상에서 우리는 현행 우리 문장 부호 사용에서 시급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규정부터가 좀더 정밀히 보완되어야 (또 새로이 추가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이상의 것들만 바로 정비되어도 우리 문장은 한결 명쾌해지고, 동시에 格調가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적어도 이제는 그만한 格調는 누려야 한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다. 우리가 정비해야 할 문제들은 결코 오늘 우리가 논의한 범위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해 좀더 본격적인 작업을 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거나와 여기에서는 다음 문제만 하나 더 제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려 한다.

쉼표와 관련하여 쌍반점(semicolon)의 도입 문제가 노란의 대상이 되는 수가 있다. 영어에서 쌍반점은 쉼표보다 좀더 크게 문장을 잘라 놓는 부호로 쓰인다. 그런데 그 영어 문장들을 그대로 쌍반점을 살려 번역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전혀 우리말 같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고 만다. 많은 구두점이 서양에서 도입되면서도 (또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바로 이 쌍반점 부호를 채택했으면서도) 이 부호가 끝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은 이러한 양언어 사이의 이질성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문장이 길어 쉼표가 여러개 겹치게 될 때 그 쉼표 간의 층위를 구분해 주는 어떤 방도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 해결책의 하나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문장을 더 큰 단위로 나누는 자리에 쉼표 대신 쌍반점을 사용하는 길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만 쉼표

간의 층위 문제는 쌍반점의 도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쌍반점의 도입은 여전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결론이 얹어지는 듯싶다. 문장 부호는 되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채택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우리 문장의 구조나 한글字形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는 모색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장 부호 규정을 정밀히 하는 일은 우리 문자 생활의 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요, 그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겪는 일을 줄여 주는 일일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혼란에서 벗어나는 일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이 그 한 작은 출발의 신호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金敏洙, 《國語政策論》, 塔出版社, 1984.
- 이희승,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강의》, 신구문화사, 1959.
- 이희승 · 안병희,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1989.
- 《한글 맞춤법 해설》, 국어연구소, 1988.
-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1971.
- The Chicago Manual of Style*, 14th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 Gibaldi, Joseph, *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4th ed., New York :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995.
- Kane, Thomas S., *The Oxford Guide to Writing : A Rhetoric and Handbook for College Students*,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Levin, Gerald, *The Macmillan College Handbook*, 2nd ed.,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1.
-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 Washington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 Troyca, Lynn Quitman, *Simon & Schuster Handbook for Writers*, 4th ed.,

-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 Prentice Hall, 1996.
- Turabian, Kate L.,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5th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